

# “앞으로 살아갈 우리 손주들 위해 일회용품 안써야지”

### 영암 마을주민들, ‘종이컵과 헤어질 결심’ 실천 중 3월부터 역물·남문안마을 회관 스테인리스컵 사용

영암군 영암읍 역물마을과 남문안마을의 주민들이 3월부터 일회용 종이컵과의 ‘헤어질 결심’을 실천 중이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역물마을과 남문안마을 두 곳의 마을회관에는 더이상 종이컵을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종이컵의 빈자리는 작은 스테인리스 물컵이 대신하고 있다.

역물마을 이소분씨는 “열흘 넘게 마을회관에서 종이컵을 안 써, 미스커피 한 잔 마시려면 종이컵이라도 찾아야.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마시면 건강에도 안 좋잖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은 안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을 포함해 영암군 영암읍 36개 마을 400여 주민들은 지난달 17~27일 마을로 찾아온

환경교육을 받았다.

2024년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 신설된 환경팀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마을순회교육이었다.

이 교육에서 마을주민들은 폐기전 무상수거제도, 자원 재활용 우유팩·폐건전지 교환행사 방법을 안내받았다.

동시에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잔반 안 남기기,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빼기 등 탄소중립 실천 방법도 배웠고, 새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주민도 287명이나 된다.

교육을 받은 400여 주민 중 역물마을과 남문안마을 주민들은 상의를 거쳐 배움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영암군 남문안마을 어르신들이 3월부터 마을회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스테인리스컵을 사용하고 있다.

의견을 받아들여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식사할 때 일회용품과 잔반 줄이기에 나섰다.

조민환 남문안마을 이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교육에서 배

웠다”며 “마을주민들이 함께 합의한 약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살기 좋은 청정마을을 위해 더 많은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PEOPLE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 광양제철소·여수광양항만공사 장애인 불링선수 지원 사업 육성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2025년 불링과 우리길 고군검을 힐링사업비’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정인화 시장,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 이준재 광양장애인복지관장, 정현주 증마장애인복지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불링과 우리길 고군검을 힐링사업’은 평소 체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링 및 검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나눔재단’에서 5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5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명의 장애인 불링선수를 육성하고 지역 장애인 및 가족 696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불링대회’와 지역 트레킹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동행하는 경영이념으로 이번 사업이 지속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귀천 기자 lkjin@gwangnam.co.kr



## 광주농업기술센터 ‘늘봄학교 농업체험’ 운영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까지 늘봄학교와 연계한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학운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7일 시작된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늘봄시간(방과후 시간)인 오후 1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광주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강사 교육’에서 선발된 우수한 강사들이 맡은 만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자연과 친숙해지고 농업을 통한 건강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여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에 서형일씨 위촉

### 8년 만에 교체...합창단 분위기 쇄신·예술적 도약 기대

여주시는 여주시립합창단을 이끌어갈 상임지휘자에 서형일씨(52)를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주시립합창단 지휘자가 교체된 것은 8년 만에로,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앞두고 합창단 분위기 쇄신과 예술적 도약을 위한 결정이라고 여주시는 설명했다.

서 지휘자는 미국 아리조나대학교에서 합창지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지메이슨대학교(석사)와 서울신학대학교(학·석사)에서 석사와 합창지휘를 전공했으며, 최근까지 서산시립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공연을 이끌었다.

서 지휘자는 오는 6월 5일 취임 연차회로 벨칸토 합창음악의 진수인 ‘베르디의 레퀴엠’을 선보이며 여주시립합창단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형일 지휘자는 “단원들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합창으로 음악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는 무대를 선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기명 시장은 “2026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기획돼 있어 기대가 크다”며 “여수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여주시립합창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광주경총, 유영대 교수 초청 금요포럼 ‘성료’

### ‘생각과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1678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금요조찬포럼에서는 남서울대 및 수원대 교수이자 선순환문화연구소 원장인 유영대 교수가 ‘생각과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며 성공에 대한 핵심요소와 조직 및 기업경영 환경의 변화,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에 대해 역설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회원 기업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 경영, 문화예술,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교류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신안군 신의면 천사봉사단 도서낙도에 뗏목

### 어르신들 주거환경 개선 도움...떡국 봉사활동도

신안군 신의면 천사봉사단원(복지기동대) 25명은 최근 신의면의 부속도서 기도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기도는 신의면에서 1.3km 떨어진 낙도로 10세에 15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해 신의면 천사봉사단원들이 나선 것이다.

천사봉사단은 가스와 난방유 공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와 전기장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의 목은 살림을 배출했으며, 청소로 마무리했다.

지원을 받은 기도의 한 어르신은 “살다보니 이런날도 있네”라며 감사를 표했다.

주거환경개선 이후에는 천사봉사단원들이 떡국



을 준비해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삶의 이야기에 대한 대화자로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박향란 신의면장은 “주민들이 행복할 때까지 천사봉사단과 손잡고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서창농협, 농가 순회...폐영농자재 수거 활동

서창농협은 최근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회원 50여명이 참여 농가 순회하며 폐영농자재와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 20여톤을 수거하고 분류작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영농회 순회 및 마을 주변에 방치된 폐영농자재를 수거했다. 수거한 폐영농자재는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통해 처리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연말 사랑의 쌀·김치나누기 행사의 재원으로 사용돼 홀몸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청정 서창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폐영농자재 수거 농가 참여율을 높여 농촌 환경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역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월·금·오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급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 은세 (음력 2월 18일)

48년생 가족일에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  
60년생 문서의 행운이 다가온다  
72년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84년생 중저렴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  
96년생 노력의 대가가 찾아온다

51년생 잠시 피하라. 그것이 실길  
63년생 판공을 설명한다면 유리한 입장  
75년생 소유하는 것을 지켜야 할 시기  
87년생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  
99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

54년생 친척의 비보로 우울하다  
66년생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운  
78년생 의지의 유무가 관건  
9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57년생 지남지 아픔은 글뭉  
69년생 활왕만 잘한다면 가치를 창출  
81년생 시간을 쪼개어 스노라 애를 먹겠다  
93년생 의외의 금전은 쉽게 사라지는 법

49년생 수중의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자  
61년생 대동소이하니 일말 처리해도 되겠다  
73년생 기회가 왔으니 꼭 잡으라  
85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트인다  
97년생 혼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52년생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  
64년생 현재 갖고 있는 것까지 내어 주라  
76년생 중북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라  
88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55년생 간단하게 처분할 문제가 아니다  
67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 않는다  
79년생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하기 힘들다  
91년생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5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금전 거래 사절  
70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본다  
82년생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94년생 어려웠던 속제가 풀리리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이득과 손해가 함께 온다  
62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7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6년생 이성의 교묘를 주의하라  
98년생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보라

53년생 달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  
65년생 헤쳐야 하는 날  
77년생 자녀에게 행운이 따른다  
89년생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찾으라

56년생 부부 다툼엔 이익이 없다  
68년생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80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하다  
92년생 방향을 바꿔 보라

59년생 짐작코만 있으면 될 것이다  
71년생 손해가 큰 이익으로 다가올 것  
83년생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95년생 늦지 않았다. 배워두고 보자